

大韓電氣學會의 現況과 展望

大韓電氣學會 總務理事·明知大學 教授

姜 錫 圭

머 리 말

學會란本來學術에關係하는사람들 또는 이에關聯되는 일에從事하는사람들이모이는곳이다.學會의存在가一般人이到底히손질수없는高峰의꽃이되거나實社會와동떨어진象牙塔속에서孤高獨善에박질時代는지났다. 더구나電氣工學은實學이니만큼우리의實生活에密接하게關聯되지않으면안된다.

社團法人大韓電氣學會는電氣學術(技術)이나그應用分野에關聯되는사람들이모여電氣學術(技術)및그應用에있어서의向上發展을圖謀하고兼하여會員相互間的親睦을맺어보자는데目的을가지고있다.(定款第2條)民間人の任意團體이지만그러나아무나마음대로들어올수는없게一定한資格規定을만들었고더구나會의核心인正會員은學歷, 經歷 등에相當한制限을두어一定한水準의維持를피하고있다.

어느나라를莫論하고公認받은學會는그部門에있어서그나라學術의最高首腦를糾合하고第一級水準學者를大概網羅하는것이다. 그리하여이를中心으로各大學, 研究所 또는現場에서研究한것을서로交換하고發表하여學術의尖端을리이드해서그나라學術水準을높이는데中樞役割을하는것이다. 따라서富強한나라일수록, 文化가發達한民族일수록, 豐足한後援과保護를받아좋은學會를構成하고좋은事業을活潑히展開하는것이다.事實學會란本來그事業性格이一般社會에서當場 눈에 띄이게 나타나거나社會輿論의刺戟材料가되거나하지못하기 때문에華麗하지도 못하고表面上 잠잠한것이다. 그래서後進國 또는混亂한社會에서는恒常 뒷전에 파묻혀서 그

속의微微한存在가되기 쉽다. 그러나앞에서말한바와같이學會의存在는한나라의中樞頭腦같은것이기 때문에이의保護育成이 없이는머리없는人體 모양이 될 것이므로 무슨苦難을 겪더라도 우리는이의維持發展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學問이란그本質이凡世界的인性格을 띠고人類共同的의利益을追求하는 것이기 때문에超民族的, 超國家的이 되는一面을 가진다. 그리하여獨善排他가 될 수 없고 어느分野보다도國際的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學會에서도外國과의連結, 學術交換을重要事業의 하나로 삼고後記하는바와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學會의 또 다른一面은 가장獨立의이고個性과特性을 가져야 한다.各民族은民族마다 주어진環境과素質과歷史가 다르니만큼 그 다른데로의 것을 살리고開拓하여全體學界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後進을克服하기爲하여先進導入은避할 길이 없겠으나 거기에만 치친다면永遠한後進을免치 못할 것이니先進導入과同時에우리의特有한面을 새로이開拓하도록併進作業이必要하다.

(1) 大韓電氣學會의 創立

大韓電氣學會의歷史는解放直後로 올라가 시작된다. 日政時代日本東京에日本電氣學會(1888年創立)라는 것이 있었으나 자기네日本人끼리 모여日本爲主인團體를만들어가지고韓國人으로서는幾個人이 여기에加入하기는 했으나現在の우리學會와는何等相關이 없는 것이었다. 解放이 되자國家單位로서의 모든機構가一時에形成되기 시작하였고 우리學會도電氣人들의集合體로서그創立이論議되기 시작하였다.

1947年 7月 9日 尹日重, 金鍾秀, 廉道有, 金在信,

李泰煥, 石晚基, 李宗日, 金俊植, 徐錫仁, 朴昌培, 李栢圭, 權舜憲, 鄭珍陽, 宋龍根, 李春珠 諸氏가 創立推進委員이 되어 舊京城電氣株式會社 會議室에 모여 朝鮮電氣學會를 設立하기로 하고 初代 會長에 當時 朝鮮技術聯盟 理事長으로 계시던 尹日重氏, 副會長에 權舜憲氏를 選任하였다. 그 때의 創立趣旨書를 보면

『廣大深遠한 現代科學과 燦爛華麗한 우리 文化는 舉皆 電氣로써 發達되고 電氣로써 營爲되고 있는 母이며 實로 電氣는 宇宙萬物의 根源이오 千變萬化의 原力이라 大稱하는 바이다.

究理와 發明은 學術의 行程이오 營爲와 運用은 技術의 常道라. 然故로 學術과 技術이 表裏相合하고 相扶相助하여 深然成熟 然後에 비로소 利用 厚生의 實을 得할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社會는 一人의 英才와 一個의 技術로써 成就되는 것이 아니고 各種 分野의 學術과 技術이 緊密 結束되고 有機的 活品과 關聯的 運動이 行하여집으로써 完成되는 것이다. 卽 偉人의 引導는 勿論이거니와 衆智로써 補強하고 特技로

써 完成하여 一聯의 運動이 展開될은 當然한 理致다.

이에 建國創業에 즈음하여 一領 部門에 不過하나마 우리는 相合相論하며 相對相議하여 切磋琢磨로써 滄海一粟이라 할지라도 技術報國에 微力을 다하고자 茲에 本學會를 創設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會는 設立되었으나 그 後 이 땅의 混亂相 그대로 崎嶇한 歷史와 갖은 波瀾曲折을 겪으면서 事務室 移轉만도 7次를 거듭하는 逆境을 지나왔다. 定款도 時勢의 變遷에 따라 1961年 2月 第1回 改正을 거쳐 1964年 3月의 第2回 改正으로 條目마다 根本的인 大改正을 하여 現在의 것이 된 것이다.

처음 名稱은 「朝鮮電氣學會」였었는데 1949年 3月 5日 「大韓電氣學會」로 改名, 1955年 1月 1日 商工部長官으로부터 社團法人體 認可를 얻어 同年 3月 22日 「서울地方法院 603의 1號로 法人登記를 마쳐 여가 名實相符한 「社團法人 大韓電氣學會」가 完成된 것이다.

歷代 會長 및 副會長

歷代	會長	副會長	就任期間	學會名稱
初代	尹 日 重	權 舜 憲	1947. 7. 9~49. 3. 4	朝鮮電氣學會
2代	李 宗 日	金 在 信	1949. 3. 5~52. 7. 18	大韓電氣學會
3代	尹 日 重	金 鍾 秀	1952. 7. 19~55. 1. 7	"
4代	尹 日 重	金 鍾 秀	1955. 1. 8~56. 12. 13	社團法人 大韓電氣學會
5代	尹 日 重	金 鍾 秀	1956. 12. 14~59. 1. 15	"
6代	尹 日 重	金 鍾 秀	1959. 1. 16~62. 6. 6	"
7代	金 鍾 秀	廉 道 亨	1962. 6. 7~63. 1. 28	"
8代	李 宗 日	廉 道 亨	1963. 1. 29~63. 3. 10	"
9代	李 宗 日	廉 道 亨	1965. 3. 11~現在	"

(2) 體制上的 特徵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徹底한 會議中心制이다. 總會, 理事會, 常任理事會가 會務全般를 立案 處理해 나가게 되어 있다.

總會는 「最高機關」으로서 定期와 臨時로 나누어 定期는 每年 3月 서울에서 開催하고 事業 및 豫決算 承認, 定款 및 規則 變更 등을 議決하는 것은 普通 다른 會와 비슷하나 在京 正會員 10分의 1 以上の 出席이런 成立되도록 한 것은 좀 特異한 點이라

하겠다. 이러한 種類의 會合은 大概 出席率이 나빠서 流會되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可及的 막아 보자는 것이다.

理事會는 會員의 代議員格인 理事로써 構成된 「代議機關」으로서 每月 1回 以上 召集되어 重要한 會務는 大概 여기를 거쳐 執行된다.

常任理事會는 會務 「執行機關」으로서 各種 案件을 만들어 理事會, 總會에 提出하고 거기서 通過한 것을 執行한다.

둘째 特色은 各 任員의 選出方式이다. 正會員이

던 다 選舉權이 있는데 被選舉權만은 在京正會員에 限하여 附與되어 있다. 이것도 任員 集合을 容易하게 하여 會務執行을 能率化하려는데 意圖가 있다. 于先 各 會員의 代辯者로서 理事를 選出하는데 普通例와 같이 總會 席上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全國正會員의 書面投票로써 한다. 그 規則은 다음과 같다.

<規 則>

第14條 理事의 選出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에서 新任理事 候補者 50人을 選定하여 全 會員에게 알린다.
2. 正會員은 其中 20人만을 當該年 2月 20日까지 本會 事務所에 到着하도록 書面投票한다.
3. 前項에서 投票한 것을 開票하여 그 中 得票順位에 따라 20人을 選出한다.
4. 前項에서 選出된 理事 20人이 會合하여 殘餘理事 15人을 選出하여 合計 35人의 理事를 確定한다.

第15條 監事의 選出節次는 다음과 같다.

前條 3項에서 選出된 理事 以外的 最高得點者 2人 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理事 35人이 確定되면 理事會를 構成하여 여기서 會長 1人과 副會長 2人의 會長團을 選出하고 選出된 會長이 理事 中에서 常任理事 7人을 推薦하여 全體理事會의 承認을 얻고 그 承認된 7人의 常任理事와 會長團 3人으로 常任理事會를 構成한다.

셋째 特色은 會員 中에 事業維持會員이라는 것이 있다. 本 學會 會員은 名譽會員, 正會員, 准會員, 學生會員, 事業維持會員, 贊助會員의 6種이 있는데 가장 核心體는 正會員이고 資格이 이에 未達된 者는 准會員, 初級大學 以上 在學生은 學生會員이 된다. 名譽會員, 贊助會員은 文字 그대로 會로서 推戴할만한 者 또는 一時的 財政援助를 한 者로서 普通 會에도 있는 것이다. 이 中 事業維持會員制만은 色다른 것으로 本稿 初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學會 活動이란 實社會의 當場의 名利와는 無關하기 때문에 또는 強制性이 附與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篤志家의 財政의 援助 없이는 그 事業을 維持하기 困難하다. 따라서 諸外國의 學會에서도 이런 制度를 넣은 데가 많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 制度 없이는 學會運營이 안 될 實情에 있어 이러한 制度를 設置한 것이다. 지금 우리 學會에도 國內의 電氣關係

有力 業體, 團體는 거의 다 事業維持會員으로서 加入되어 거기서 喜捨하는 金額은 例年 總豫算의 過半額을 차지하고 있는 形便이다.

(3) 學會의 現 規模

우리 大韓電氣學會는 數三年來로 會員數도 높고 事業도 活潑해져서 會勢가 急上昇하고 있다. 電源開發의 進陟, 電氣界 全般의 整備等 客觀情勢의 變化와 自體內에서의 自覺의 結果라고 하겠으며 今後도 繼續 이 上昇커버브를 維持하여 外國의 學會와 견줄만큼 되어야 할 줄 안다. 現在 우리 나라 理工系統의 近 20個 學會 中에서는 가장 規模도 크고 健實한 측에 屬한다 하겠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歷史와 그 동안의 많은 歟은 功勞者들, 特히 어려운 時期에 會務를 맡아 會를 이끌어 오신 役軍들의 獻身의인 盡力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① 會員 및 役員

1965年 9月末 現在 會員 總數는 2,500餘名에 達하며 그 內譯은 다음과 같다.

正 會 員	985
准 會 員	283
學 生 會 員	141
事業維持會員	46
會籍未整理分	1,048
計	2,503

여기 學生會員은 過去の 定款에 明示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1964年 3月 改定된 定款에 新設한 것이다. 學會事業 中 重要한 項目의 하나가 後進指導問題인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中이라도 하더라도 우리들의 後續部隊인 新進養成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學生會員들을 많이 包攝하여 모든 學會事業에 積極 參與케 하고 最大限의 惠澤을 받도록 保障해야 할 것이다. 多幸히 全國 各 大學教授들이 모두 本 學會 會員이므로 學生들과 聯關性을 맺는 데에는 매우 便利한 것이다. 事實 지금도 學生會員들은 그 惠澤을 받고 있는 셈이다. 學生會員 1人에 對하여 年 會費 18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學會誌(無料配付) 年 6回(卷) 分の 實費에도 훨씬 모자라는 額數이다.

各 大學 電氣工學科 學生들로서 構成된 大韓學生 電氣學會라는 것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趣旨下에 우리 學會에서는 後進團體로 認定하여 精神的 物質的(少額의 補助金 支給) 支援을 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緊密한 紐帶를 맺을 생각이며 줄

體 電氣工學徒에 對하여 明年度부터 海外派遣, 獎學金授與, 研究發明獎勵 等を 하고자 構想中이다.

우리 學會는 勿論 非政治, 非營利 團體이며 役員은 會長 以下 全員 無手當, 無給制이고 事務室에 2, 3名의 有給 職員이 있을 뿐이다. 各 理事들은 實地 各 職場에서 大概 幹部級으로 公私間 多忙한 분들임에도 不拘하고 每月 定期會議에 1回, 分科委員會 等其他 關與하고 있는 것까지 合하면 쳐어도 月 2~3 回は 出席하여 2~4時間 씩을 消費하게 된다. 그 中에서도 會長, 副會長을 爲始하여 常任理事들은 每週 1回(現行 每 木曜日) 會合을 갖고 會務執行을 協議하고 各自 分擔事務(各 常任理事는 總務, 會計, 編修, 調查研究의 4部 中 하나를 責任지고 맡게 되어 있다)를 處理하기 爲하여 隔日 程度로 事務室에 나오게 된다. 이러한 犧牲의 奉仕가 아니고서는 學會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이러한 奉仕精神의 꾸준한 長期的인 發露가 오늘의 우리 學會의 土蓋를 이룩한 根源이라 생각된다. 事實 筆者는 最近에 學會에 關聯하기 始作했기 때문에 옛날의 것은 잘 모르지만 이 奉仕精神과 또 하나 會計經理上의 清潔性은 우리 學會의 오랜 傳統이라고 믿는다.

② 事業 및 財政

<1965年度 事業計劃>

- (1) 會誌 發行 回數 增加(年 6回 發行)
- (2) 「電氣用語集」의 發行 및 「電氣工學포켓북」의 發行
- (3) 會員名簿 發行
- (4) 學術講演會 및 研究發表會 開催
- (5) 調查研究의 強化
- (6) 見學 및 視察
- (7) 大韓電氣協會에의 加入
- (8) 支部 設置
- (9) 會員 確保
- (10) 其他(會員證지 및 會員證의 制定)

總額에 있어서 前年(1964年)에 比하여 65%, 1,002,150원이 增加했는데 이는 數年來로 學會 發展速度가 急上昇하여 學會 本然의 事業에 着手하기 始作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增額은 豫算編成 當時 多少 無理하다는 느낌도 있었으나 會勢 上昇커버를 그대로 갠취하여 意慾의인 事業計劃을 세워본 것이다. 多幸히 現在 이 豫算대로 큰 蹉跌없이 進行 中에 있다.

1965年度 歲入歲出豫算書

收 入		支 出	
科 目	豫 算 額	科 目	豫 算 額
	(원)		(원)
會 費	1,440,000.00	出 版 費	1,332,000.00
廣 告 料	210,000.00	會 議 費	100,000.00
雜 收 入	68,000.00	交 通 費	160,400.00
特 別 收 入	530,000.00	調 查 研 究 費	70,000.00
前 年 度 移 越 金	304,769.00	通 信 連 絡 費	72,854.00
		岡 書 費	44,000.00
		貸 借 手 數 料	158,200.00
		煖 房 費	25,800.00
		備 品 費	41,500.00
		消 耗 品 費	41,246.00
		人 件 費	329,000.00
		團 體 會 費	16,000.00
		支 部 補 助 費	30,000.00
		諸 雜 費	79,500.00
		豫 備 費	52,269.00
合 計	2,552,769.00	合 計	2,552,769.00

論文, 技術解説 等으로 綴어지는 會誌는 今年度 부터 隔月로 發行키로 하여 現在 그대로 進行中이며 創刊號(1947年)부터 쳐서 總 33回(輯)를 내고 있는데 그 33回 中 昨年 4回, 今年 3回 것이 들어 있으니 이것만 보아도 會勢의 急上昇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每月 發行을 目標로 推進中에 있다.

外國語에 能熟치 못한 新進들을 爲하여 또는 우리 나라 데이터를 많이 넣고 우리 나라 實情에 맞는 우리 나라 技術者의 有用한 伴侶로서 最初의 「電氣工學便覽」(日本의 「電氣工學 Pocket Book」 같은 것)을 만들기보 爲하여 編纂委員會를 構成하고 10餘次의 會合 끝에 國內 權威陣 및 一線 實務中堅을 總網羅하여 約 100名의 執筆委員을 委囑하여 執筆中에 있다. 菊版 1,500頁 程度로 明年 中에는 出版되어 나올 豫定이다.

우리 나라에서 絶對的으로 開發이 必要視되는 鐵道電化問題를 다루기 爲하여 鐵道電化研究調查委員會를 만들었다. 人口가 늘고 産業, 文化가 發展함에 따라 交通量은 자꾸만 늘기 마련인데 우리 鐵道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한 밤울도 나지 않는 기를 단을 使用하는 디젤機關車化 方向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方面에 造詣가 깊은 委員들이 벌써 10餘

次 모여 電鐵化의 必要性, 有益性을 研究, 檢討하였으며 서울시의 交通難 解消, 農村電化를 包含한 電力需要開發問題 等과도 連結지어 各 要路에 建設 文을 提出하고 輿論을 喚起시키기로 하였다.

解放 以後 제멋대로 써 오던 技術用語, 特히 電氣用語의 統一도 가장 時急을 要하는 問題의 하나로서 우리 學會에서 이의 制定統一에 着手, 昨年度에 原稿가 完成되어 文敎部와 交涉中에 있으므로 近 間 出刊하게 되리라 믿는다.

③ 對外關係

學會란 그 나라 學術의 最高水準을 지키고 리이 드하는 團體이기 때문에 그러기 爲해서는 外國 特히 先進國과의 交流가 絶對로 必要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本 學會에서도 昨年 美國 Columbia 大學 教授 金玩熙 博士 招請講演會 以後 急激히 活潑해져 여러 外國學會와 連結지어 會誌를 交換하고 있다. 現在 交換되고 있는 外國 學會誌는 다음과 같다.

美 國 : IEEE Spectrum (1965年 1號부터)

佛蘭西 : Revue Générale de l'Électricité
(1965年 1號부터)

英 國 : Electronics & Power (1965年 6號부터)

日 本(電氣) : 電氣學會雜誌 (1964年 7號부터)

“ (通信) : 電氣通信學會雜誌
(1964年 11號부터)

特히 美國과는 緊密한 關係를 맺고 있으며 前에 本 學會 常務理事로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李晚榮 博士가 昨년에 渡美 長期間 滯留한 豫定이므로 그를 中心으로 美國 文部 設置 準備가 進行中인 것으로 안다.

(4) 學會의 今後 計劃 및 展望

本 學會의 現在 狀態는 學會 本然의 事業을 막시 착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이를 維持, 擴充시키려던 于先 먼저 그 據點인 本體 基礎를 더욱 鞏固히 하는데 一層 奮發하여야 할 것이다.

① 現在의 會員數는 우리 나라 全體 電氣技術者의 數는 아니다. 나머지 未加入者를 對象으로 하여 新 會員 加入勸告를 強力히 推進시켜야 되겠다. 特히 事業維持會員에 對해서는 現在도 國內 主要 業體, 團體는 거의 다 加入되어 있지만 아직도 漏落된 곳이 있으므로 이를 다 網羅하도록 하여야 되겠다.

② 앞에서 말했지만 現在 隔月로 發行하는 會

誌를 月刊으로 하여야 되겠고 論文爲主의 會誌와 消息傳達 程度의 會報로 分離하는 것도 빠르면 明年 부터는 實現될 可望이 보인다. 또한 「電氣工學便覽」 (Junior 版·高卒程度)은 이미 着手되었으니 「電氣工學便覽」 (Senior 版·大學程度), 「電氣工學시리즈」 등의 發刊도 構想하여야 될 것이다.

③ 우리 나라는 電氣界 全般을 通하여 아직 制度 面을 爲始하여 草創期에 處해 있다 하겠다. 따라서 電氣技術에 關한 制度와 政策의 整備, 運營의 改善 等 未備, 不合理的 點이 하나 들이 아니다. 經濟復興의 土臺를 工業化에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工業의 基幹인 電氣問題는 무엇보다도 優先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學會란 利害關係를 떠난 純粹한 學術 研究機關인만큼 嚴正中立을 지킬 수 있는 機關이다. 이런 意味에서 先進諸國에서는 各 學會를 잘 利用하고 있다. 우리는 多幸히 잘 組織되고 健實하게 運營되고 있는 이 學會를 가지고 있느니만큼 이를 잘 利用하여 國家富強에 寄與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大韓電氣協會와의 關係

우리 學會가 大韓電氣協會에 加入한 것은 協會에 吸收, 變質되어 學會가 消滅 또는 弱화하는 길을 밟으려거나 또는 協會에 들어가서 協會 本來의 目的과 使命을 變質, 弱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本質과 固有의 目的을 達成시키는데에 扶相助하고 더욱 效率化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 學會가 할 수 있는 協會 일이라면 어디까지나 推進할 것이요 協會가 우리 學會를 도와줄 일이면 어디까지나 도와주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意味에서 協會事業의 一環으로 學術的인 調查研究 分野는 積極的으로 맡아 할 것이고 協會側으로서는 財政的 後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 안다.

知的으로 높은 水準에 있는 民族은 絶對로 亡하지 않는다. 더구나 科學技術이 發達한 나라는 언젠가 先進國의 隊列에 끼이게 마련이고 幸福한 國民 生活를 營爲할 수 있는 것이다. 一時 敗亡했던 西獨, 日本은 科學技術의 基礎를 가졌기 때문에 再 起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다 같이 잘 살기 爲한 大目標 아래 科學技術 中の 重要한 項目인 電氣 技術을 發展시켜야만 되겠고 이를 爲해서는 學識의 健實한 運營이 期約되어야 하겠다는 點에서는 學會나 協會가 다름 理가 없을 것이다.